

# 조선시대 군주고사도\*

— 제순고사도(帝舜故事圖)를 중심으로 —

송 희 경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조선시대 군주고사도의 현황
  - 1. 문헌에 기록된 군주고사도
  - 2. 현존하는 군주고사도
- III. 제순고사도의 제재와 표현방식
  - 1.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순제대효(舜帝大孝)’
  - 2. 제순남훈전탄금(帝舜南薰殿彈琴)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8-A0001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58-A00010).

### <국문 요약>

이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군주고사도의 제재와 표현방식을 파악하여 고사인물화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했다. 특히 중국 고대의 성군으로 존경받았던 순임금의 고사도를 선별하여 시각적 특성과 표상을 논의했다. 순임금고사도의 주요 제재는 효성 지극한 효자의 미덕이 강조된 ‘순제대효’와, 선정을 베풀었던 성군의 이야기인 ‘제순남훈전탄금’였다. ‘순제대효’는 교화용으로 편찬된 《삼강행실도》에, ‘제순남훈전탄금’은 어전을 비롯한 왕실의 공간에 교훈용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제순남훈전탄금’은 유학자의 고사와 함께 성현고사첩에 수록되어 도통의 계보를 표시했다. 김홍도의 <토계모자도>는 요임금의 상징으로 알려진 ‘토계모자’와 순임금이 금을 타는 장면이 혼용된 군주고사도였다. 인물은 중국의 복식이나 관모를 갖춘 고전상으로 표현된 반면, 전각이나 주위 정원은 한국적 풍경으로 연출되었다. 조선시대의 군주고사도는 군주가 지닌 성군, 성현, 효자로서의 덕목을 다양하게 시각화했다. 이는 왕실과 사대부를 훈육하기 위한 감계용 교본이나, 선정과 도학, 치통과 도통을 계승하는 유학의 상징으로 유통되었다. 한 인물의 고사가 제작자와 감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제작됨을 알려주는 단서라 하겠다.

주제어: 군주고사도, 제순고사도, 순제대효, 제순남훈전탄금, 『삼강행실도』.

## I. 머리말

어느 왕조보다 강한 유교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의 왕실은 정치적 권위와 위상을 강조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궁중회화(宮中繪畵)를 적극 활용했다. 이는 통치자와 그 직계 가족의 상징적, 의례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형언어로 제작되었다. 고사인물화(故事人物畵)도 왕조의 정통성과 의례적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창작되었다. 고사인물화가 왕실의 의식적, 도덕적 기능을 충족하기에 적합했고, 자기 수양과 덕행을 함양할 수 있는 도구로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평성대를 구가하여 백성에게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나, 옳지 못한 행동과 판단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악주는 고사인물화의 소재로 선호되었다.

이 글은 성군과 악주의 행적을 도해한 회화를 ‘군주고사도(君主故事圖)’라 명명한다. 현재 군주고사도는 궁중에서 감계와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던 성현고사도의 영역에서, 혹은 조선시대 왕의 서화취미를 고찰하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다.<sup>1)</sup> 고사인물화에서 군주고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독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셈이다. 군주고사도에 관한 문헌기록은 상당히 발굴되지만 현존작이 많지 않아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글은 선행의 연구업적으로 토대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군주고사도의 제재와 화목, 표현방식을 파악하여 고사인물화의 또 다른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군주고사도의 범위는 중국과 한국의 성군 일화를 도해한 작

1) 박정혜, 「궁중회화의 세계」, 『왕과 국가의 회화』(박정혜, 윤진영, 황정연, 강민기 지음, 돌베개, 2011), 121-123쪽,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 감상화」, 『조선 궁궐의 그림』(박정혜 외, 돌베개, 2012), 193-194 참조. 이선옥, 「성종(成宗)의 서화 애호(書畵愛好)」, 『조선왕실의 미술문화』(이성미 외, 대원사, 2005), 113-154, 진준현, 「숙종의 서화취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보』7(서울대학교 박물관, 1995), 3-40쪽 참조.

품으로 한정하되, 중국 고대의 성군으로 존경받았던 제순(帝舜)의 고사도를 주목하여 시각적 특성과 표상을 논의한다. 신화 속의 인물인 제순은 삼황오제(三皇五帝) 가운데 오제의 마지막 군주이자, 선대의 제요(帝堯)와 더불어 성군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왕실 뿐 만 아니라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어람용이나 사대부 감상용으로 유통된 제순고사도를 수합하여 화제와 표현방식을 고찰하면, 조선시대 군주고사도의 다양한 면모와 이에 내재된 함의가 파악될 것이다.

II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열성어제』 등 문헌에 기록된 군주고사도를 목록화하는 한편, 현존하는 작품을 수합하여 조선시대 군주고사도의 현황을 정리한다. 왕실에서 제작된 다수의 군주고사도는 현비고사도나 성현고사도와 함께 화첩으로 꾸며지거나 병풍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통치 전반기에는 명군이었으나 점차 악주로 변절한 『선명후암병(先明後暗屏)』도 시각화되었다. 군주고사병의 장첩 구성은 고사인물화의 다양한 기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제순이 다른 군주와 더불어 성첩되어 성군의 위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유교와 도통을 전수하는 도학자와 함께 성현으로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III장에서는 군주고사도 중에서 제순고사도를 선별하여 제재와 표현방식을 본격적으로 고찰한다. 순임금고사도의 제재는 크게 ‘순제대효(舜帝大孝)’와 ‘제순남훈전탄금(帝舜南薰殿彈琴)’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순제대효’는 효자를 도해한 행실도류에 포함되는 반면, ‘제순남훈전탄금’은 명군병(明君屏)이나 군자병(혹은 군자첩)에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이 글은 군주고사도, 특히 제순고사도의 화제 및 도상적 연원과 기능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조선시대 향유된 군주고사도의 다층적 의미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제순고사도의 역사적 상징성 및 이에 내재된 함의까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 II. 조선시대 군주고사도의 현황

### 1. 문헌에 기록된 군주고사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군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권력과 위엄의 상징인 초상화로, 혹은 성현의 행적을 도해한 고사인물화로 계속 시각화되었던 까닭일 것이다. 이미 장언원(張彦遠, 815-879)은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서 “사물을 선양하는 데는 말보다 나은 것이 없고 형상을 후대까지 보존하는 데는 그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기술하면서 회화의 효능을 설명했다. 또한 조식(曹植, 192-232)이 언술한 다음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인물화가 간직한 감계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삼황오제의 상을 보고 우러러 받들지 않음이 없고, 하은주 삼대 말의 폭제의 상을 보고 슬퍼하고 놀라 탄식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것으로서 감계의 의미로 보존하는 것이 도화임을 알 것이다.<sup>2)</sup>

조선 왕실에서 감계용 교본으로서 고사인물화나 초상화를 제작했음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입증된다. 태조(太祖, 재위 1392-1398)가 공신들의 초상과 함께 어진을 장생전에 그려 두려는데, 예조(禮曹)가 “오직 주나라에서는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안은 그림을 그렸고, 한나라 영대(靈臺)와 당나라의 능연각(凌烟閣)은 공신만을 그렸을 뿐이며, 어진을 봉안한 예는 없다”고 상언한 기사가 그것이다.<sup>3)</sup> 이에 태종은 장생전을 고쳐 ‘사훈각(思勳閣)’을 만들고 공신의 초상만을 내 걸도록 지시하면서 개국공신들이 태조의 명을 어겼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타이러 것을 당부

2) 장언원, 『역대명화기』 1, <서화지원류>(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중국화론선집』(미술문화, 2001), 31-33쪽

3) 『국역 조선왕조실록』 태종 11(1411)년, “6월25일 (갑인) 장생전을 사훈각으로 개칭하다”

했다.<sup>4)</sup> 또한 태조가 관성(觀省)의 자료로서 벽 위에 중국의 군주고사도를 그리도록 명하자, 당시 문신이자 음악가였던 김첨(金瞻, 1354-1418)은 주 문왕(周文王)이 세자 시절에 왕계(王季)를 문안하던 고사, 한 고제(漢高帝)가 태상황(太上皇)에게 헌수(獻壽)하던 고사, 주 선왕(周宣王)의 후비(后妃)가 선왕이 늦게 일어나는 것을 간언한 고사, 당 장손황후(唐長孫皇后)가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정직한 것을 하례한 고사 등을 추천했다.<sup>5)</sup> 이는 군주의 인간적 덕목인 효와, 통치자의 능력인 덕을 표명하기 위해 선택된 제재였다.

그러나 조선 왕실이 단순히 명군의 업적과 일상만을 소재로 삼은 것은 아니다. 악주의 행실도 경계와 교훈의 대상으로 삼아 도해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世宗, 1397-1450)과 성종(成宗, 1457-1494)의 어명으로 제작된 군주고사도이다. 세종은 1441년 호조 참판 이선(李宣, ?-1459),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저작랑 이개(李塏, 1417-1456)에게 『명황계감(明皇誡鑑)』을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명황계감』이란 당현종이 황제 제위기간 중에 성공하고 실패한 사적을 도해한 도감으로 추정된다. 세종은 “명황과 양귀비의 일을 그림으로 그린 것은 매우 많지만, 이는 놀이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원과 천보연간의 행적을 각각 구별하여 시각화하도록 명했다.<sup>6)</sup>

박팽년은 『명황계감』서문에서 “먼저 형상을 그린 뒤 사실을 바로 적어, 어떤 대목은 선유(先儒)들의 의논을, 어떤 대목은 고금의 시를 붙였다”고 이 책의 구성을 설명했다.<sup>7)</sup> 『명황계감』은 감계용 교본이 되어 후대의 왕들도 열람했던 듯, 왕조실록에 계속 등장한다. 예컨대 『명황계감』의 찬집

4) ‘주공이 성왕을 안은 그림’은 주 무왕이 죽고 아들 성왕이 즉위하였으나 아직 어려서 정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삼촌인 주공이 그를 보필하여 정사를 돌봄을 뜻하는 고사인물화이다. 서거정, 『사가시집』 40 <周公負成王朝諸侯圖>, 李承召 『三灘集』 九 <應製周公負成王朝諸侯圖> 참조

5) 『국조보감』 3 태종 2(1402)년

6) 『국조보감』 7 세종 23(1441)년

7) 서거정, 『동문선』 94 <명황계감 서문>

에 가담한 세조는 주석부분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엽(李琰, 1434-1467), 도승지 홍응(洪應, 1428-1492), 전 상주 목사 김수온(金守溫, 1410-1481) 등에게 그 가사를 언문으로 번역케 했다.<sup>8)</sup> 연산군과 중종도 『명황계감』을 궐내에 들이라 명하여 자주 감상하며, 당현종의 실정을 국사에 운용했다.<sup>9)</sup> 선왕의 사업을 전범으로 삼아 후손에게까지 계승한 것이다.

세종 이외에 왕의 공과 실을 교훈으로 도입한 임금의 바로 성종이다.<sup>10)</sup> 13세 어린나이에 왕위에 오른 성종은 감계와 교훈의 대상인 군주고사도를 적극 활용했다. 19세에 은무을(殷戊乙), 위선공(衛宣公), 진영공(晉靈公), 송강공(宋康公), 제 동훈후(東昏侯), 진후주(陳後主), 영공(靈公), 오왕(吳王), 부차(夫差) 등, 잔악무도하거나 주색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악주의 사적을 그리고 시를 지어 병풍을 만들게 했다. 나아가 제왕의 악함을 경계한 이 병풍을 신하에게 열람케 한 후, 유지(柳曄), 성임(成任, 1421-1484), 임사홍(任士洪, ?-1506), 이극기(李克基, ?-1489), 이승소(李承召, 1422-1484), 현석규(玄碩圭, 1430-1480), 노공필(盧公弼, 1445-1516), 홍응에게 시를 짓게 하여 병풍 위에 적어 두었다.<sup>11)</sup> 또한 이듬해 『명군병』, 『선명후암군병』 『현비병(賢妃屏)』 등 세 개의 병풍을 그려 신하들에게 각각 시를 부탁했다.<sup>12)</sup> 1480년에도 <수양제진후주도(隋煬帝遇陳後主圖)>가 일곱 번째로 포함된 고사인물화 12첩 병풍에 각각 칠언을 시를 짓게 했다. 이에(李芮, 1419-1480)가 쓴 제발에 따르면, <수양제진후주도>는 후궁이 만 여 명이었던 수양제와, 세 개의 전각을 짓고 각각 다른 여인을 머물게 하면서 드나들었던 진후주의 행동을 ‘은감(殷鑑)’으로 삼은 군주

8) 『국역 조선왕조실록』 세조 6(1460)년 4월 3일, 7(1461)년 8월 27일, 9(1463)년 5월 15일.

9) 『국역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1505)년 3월 10일. 중종 23(1527)년 6월 16일.

10) 성종의 서화 취미와 제작, 이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에 관한 논고는 이선옥, 앞의 논문, 113-151쪽 참조

11) 『국역 조선왕조실록』 성종 6(1475)년 11월 9일, 11월 27일

12) 『국역 조선왕조실록』 성종 7(1476)년 10월 21일.

고사도이다.<sup>13)</sup>

성종 못지않게 고사인물화를 제작, 감상, 품평한 국왕이 바로 숙종(肅宗, 1661-1720)이다.<sup>14)</sup> 숙종은 170편에 이르는 서화에 시문을 남기면서 조선의 어느 임금보다 그림과 글씨를 사랑했고 그 효능을 적극 활용했다. 그의 『열성어제』편에는 군주고사를 그린 그림이나 자수가 열 점 안팎 실려 있다. 성종처럼 숙종도 주대(周代)부터 당대(唐代)의 군주고사를 모두 열람한 것이다. 특히 숙종은 태종과 성종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1691년 “선하여 본받을 만하고 악하여 경계할 만한 것”을 각각 여덟 가지 그려서 두 개의 병풍으로 만들되, 앞은 자리 가까이 펴두어 성찰을 돕게 하며, 주문하는 신하가 읊시를 지어 병풍 폭 머리에 쓰라”고 하명했다. 숙종의 명을 들은 이조참판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은 경계해야 할 장면 중에서 하소강(夏少康)이 사냥에 빠져 왕위를 잃은 고사는 적절치 않다고 건의하면서 ‘순임금과 고요의 노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sup>15)</sup> ‘순임금과 고요의 노래’는 『서경』〈익직〉에 있는 고사로서, 순임금이 하늘의 명(命)을 삼가야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읊은 노래이다.<sup>16)</sup>

이 밖에도 숙종은 다수의 군주고사도를 열람한 후 시문을 남겼다. 그 중 <수양제유행도(隋煬帝遊幸圖)>는 수양제가 돛과 닻줄을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용주에 몸을 싣고 장장 200여리의 강남을 순행할 때, 수백 척의 배를 뒤따르도록 했다는 고사도이다.<sup>17)</sup> 수양제의 사치스러운 생활상은 김유(金瑬, 1571-1648), 이식(李植, 1584-1647), 윤신지(尹新之, 1582-

13) 『국역 조선왕조실록』 성종 11(1480)년 10월 14일.

14) 『열성어제』 숙종대왕편에 수록된 서화관련 시문 목록은 진준현, 앞의 글, 5-11쪽 참조.

15) 『국역 조선왕조실록』 숙종 17(1691)년 11월 12일.

16)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굉(股肱)이 다 기빠하면, 인군(人君)의 덕치(德治) 일어나, 백관의 공 널리 퍼지리라”고 하자, 고요가 “인군이 어지시면 고굉이 현명하여 만사가 편안하리이다. 인군이 좁스럽고 자질구레하시면 고굉 또한 게을러 매사가 무너지리이다. 『서경』 「禹書」 익직 11(공자 외 지음, 차수환 외 번역, 『사서삼경』, 서울:누리미디어, 2001)참조.

17) 숙종의 어제는 『列聖御題』 「肅宗大王」 卷之十五 19쪽 참조.



1657) 등의 문집에도 실려 있어, 이 화제가 왕실 뿐 만 아니라 문사관료 사이에서도 권고의 대상으로 자주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당현종관무일도(唐玄宗觀無逸圖)>이다.<sup>19)</sup> <당현종관무일도>는 당현종이 개원연간에 내전의 무일도(無逸圖)를 감상하면서 올바른 정치로의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당현종은 천보연간에 무일도를 산수도로 교체했다. 무일도를 산수도로 바꾼 시기가 개원(開元)과 천보(天寶)의 치란(治亂)이 나누어지는 기점임에 주목하여, 이 교체 사건을 흥망성쇠의 징후로 간주한다.<sup>20)</sup> 숙종의 어제가 있는 현존 고사인물화가 청록산수 배경에 진채로 완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당현종관무일도> 역시 같은 방식의 화려한 채색인물화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국왕에 따른 군주고사도의 제작현황을 정리하면, 태종, 성종 등은 여러 제왕을 수합하여 그 계보와 교훈적 내용을 강조한 관성용(觀省用) 병풍을 선호한 반면, 숙종은 각각의 일화를 그린 고사인물화를 주로 감상했다. 한편 군주의 고사는 차비대령 화원을 선발하기 위한 녹취재 인물화의 화제로도 출제되었다. 이는 순조연간에 두드러진 현상이다. 『시경』 「대아」 <하무> 제6장의 구절인 ‘수천지고 사방래하(受天之祜 四方來賀)’, ‘문왕삼조(文王三朝)’, ‘위수영태공(渭水迎太公)’ 등 주문왕과 무왕의 고사와, 그 밖에 한무제, 고제 등의 일화가 순조연간의 인물화문에

18) 金瑬, 『北渚先生集』3 <題隋煬帝行幸圖> 錦纜龍舟此一堂 日旗雲旆盡飛揚 當時意氣今安在 千古丹青祇可傷 翦彩花殘秋寂寞 放螢園廢月荒涼 君王自是輕黃屋 誰道天心屬晉陽, 李植 『澤堂先生續集』6 <題隋煬帝行幸圖> 匝岸紅樓拂柳青 畫舫緹騎擁雲 可憐千古繁華事 終愧河汾一草亭 木榻蒲團臥澤堂 短蓑垂釣卽溪航 龍舟錦纜千年事 輸與阿麼自擅場, 尹新之, 『玄洲集』7 <題具綾川所藏隋煬帝行幸圖> 隋堤楊柳不勝垂 煬帝行春彩仗移 夾岸軍容騰虎士 沿江臺榭貯蛾眉 誰言嚴法能高枕 自喜盤遊幸及時 事去匹夫求未得 畫圖留與後人悲

19) 숙종의 어제는 『列聖御題』 「肅宗大王」 卷之十五 14쪽 참조.

20) 이유원, 『임하필기』 1 <사시향관편> 참조.

21) 숙종어제가 적힌 고사인물화는 국립중앙박물관, 『왕의 글이 있는 그림』(국립중앙박물관, 2008), 10-15쪽 참조.

몇 차례 출제되었다.<sup>22)</sup>

## 2. 현존하는 군주고사도

앞서 문헌기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왕실에서 군주고사도는 꾸준히 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헌기록의 작품은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작품을 수합하여 군주고사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sup>23)</sup> 현존작을 기준으로 할 때, 군주고사도는 하나의 고사만을 별도로 그린 것과, 여러 군왕을 한꺼번에 장첩한 것으로 분류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작품이 <금궤도(金櫃圖)>(도 1)이다.<sup>24)</sup> <금궤도>는 신라 경순왕(敬順王, ?-978)의 시조인 김알지가 금궤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그린 고사인물화로서, 청록을 비롯한 화려한 채색과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는 어람용 회화이다. 문헌에 기록된 군주고사도의 제재가 거의 중국의 왕이었던 반면, <금궤도>는 한국의 왕을 선택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한 왕조를 부각한 점이 특이하다. 후자의 대표적인 작품이 왕의 초상을 모본 형식으로 엮은 『역대군신도상첩(歷代君臣圖像帖)』이다.<sup>25)</sup> 1525년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은 공자의 화상 한 폭과 역대 군신의 도상 한질을 내어 놓고 홍문관 관원에게 찬을 지어 바치라고 하명했다. 이행(李荇, 1478-1534)은 서문에서 “도(圖)로서 상(像)을 보고 마음을 찾는

22)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돌베개, 2001), 183-218쪽 참조.

23)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도해역대군감』이라는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이 서적에는 주문왕, 당현종, 당태종 등의 고사 여섯 편이 도해되어 있다. 현재 정확한 서지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실견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연구된다. 『도해역대군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일부 도판은 박정혜, 앞의 논문, 123쪽 참조.

24) 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國立中央博物館 編,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書畫遺物圖錄』14집, 靑綠山水畫六一帖(國立中央博物館, 2006), 220쪽 참조

25) 『역대군신도상첩』에 수록된 중국의 제왕은 제곡, 대요, 대순, 은탕, 진시황, 한고조, 한무제, 한광무, 한소열, 당태종, 명태조 등 총 11명이다.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_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놀와, 2007) 참조

다면, 본받고 경계할 만 한 것들이 책에 담겼으니, 마치 직접 그 사람을 만나 동행함과 같을 것”이라며 이 화첩의 효능을 설명했다.<sup>26)</sup> 현재 종종 의 명으로 제작된 『역대군신도상첩』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18세기 모사본으로 알려진 동일한 제목의 화첩이 공개되었다. 그 화첩에는 중국의 군신을 비롯하여 조선중기의 유학자의 초상까지 초본으로 장첩되었고, 11명의 중국 군왕이 수록되었다.<sup>27)</sup> 『역대군신도상첩』은 고사인물화가 아닌 초상화이지만, 조선시대 『명군병』의 기능과 군신의 계보 및 도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박물관에는 김홍도(金弘道, 1745-1806년 이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고사인물화 4첩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sup>28)</sup> 이 병풍은 종이에 엮은 색과 먹으로 완성되었으며, 각 화면의 크기는 세로 120.7cm, 가로 44.2cm이다. 손상이 심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국 황제의 사적을 소재로 한 전형적인 군주고사도병임에 틀림없다. 화제를 살펴보면, 병풍의 왼편부터 <하도낙서(河圖洛書)>, <하후씨치수성공(夏后氏致水成功)>, <성탕방라사방(成湯放羅四方)>, <강구연월(康衢烟月)>이다.

‘하도(河圖)’는 복희씨 때 황하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온, 『주역』의 팔괘의 근원이 된 도식이다. ‘낙서(洛書)’는 하우씨(夏禹氏)가 9년 동안 치수(治水)할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새겨진 글로서, 『서경』 중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기원이 된 문장이다. <하도낙서>에는 낙서의 장면이 생략되었고, 하도의 고사만 묘사되었다. 화면의 상단에는 신령스러운 물결이 넘실거리며, 하단에는 붉은 색 말이 팔괘도를 등에 지고 물살을 가르며 헤쳐 나온다. 용마의 등에 붉은 뿔이 두 개 솟았고, 얼굴에 수염이 있으며, 온 몸에 비늘이 덮여있

26) 李荇, 『容齋集』 9, <歷代君臣圖像 序文>

27) 황정연, 앞의 논문, 193-194 참조.

28) 이 작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는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글씨」, 『서울대학교박물관 연보』 3호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1), 48-50쪽 참조.

다. 말이 등장한 물가의 건너편 언덕에는 이 준엄한 광경을 지켜보는 네 명의 인물이 서 있다.

<하후씨치수성공>은 물을 잘 다스렸던 하나라의 우(禹)가 순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그림이다. 요임금 때 홍수가 심하여 치수에 능하다는 곤이 등용되었다. 그러나 홍수가 지속되자 요임금의 후계자인 순임금은 곤을 추방하고 그의 아들인 우를 천거했다. 우는 익(益), 후직과 함께 순임금의 명을 받들어 제후와 백관들에게 치수공사를 지시했다. 그들은 직접 산으로 올라가 산과 내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면서 기수에서부터 치수를 시작했다. 순임금은 이 사업이 성공하자 우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하후씨치수성공>은 바로 이 장면을 도해했다. 궁궐 안에는 순임금으로 보이는 군주가 탁자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았고, 층계아래에는 우임금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두 명의 신하가 순임금을 보좌했고, 백관들이 우임금 주변에서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성탕방라사방>은 상나라 탕임금과 연관된 고사이다. 하루는 탕임금이 들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면의 그물을 쳐 놓고 천지 사방의 짐승들이 그물로 들어오도록 축원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자 탕임금은 그물의 삼면을 제거하여,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자만 그물로 들어오게 하라”고 청했다. ‘개삼면망(開三面網)’이라고 명명되는 탕임금의 고사는 제왕의 관대하고 후덕한 정치, 즉 ‘축망(祝網)’을 의미한다. <성탕방라사방>에는 화면 상단에 그물망이 드리워 있고 그물 주변에 여러 마리의 새가 날아다닌다. 그물 망 옆에 정측면상의 탕임금이 공수자세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으며, 그 곁에 붉은 옷에 검은 장화를 갖춘 신하들이 서 있다. 아래편 언덕에서 예닐곱의 신하가 마차를 이끌며 군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장면은 성종이 1476년에 어람한 『명군병』의 <제요도>와 일치한다.

<강구연월>은 요임금이 다스렸던 태평성대의 세월을 뜻한다. 즉 강구는 요임금이 평상복 차림으로 변화한 거리를 다니다가 천하태평을 노

래하는 아이들을 만났다는 고사이며, ‘경착’은 ‘밭을 갈고 우물을 파서 마신다’는, 백성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sup>29)</sup> 이는 정조8년 윤 3월 19일 내 하등 녹취재 삼차시(來夏等 祿取才 三次試)에 ‘강구경착(康衢耕鑿)’이란 화제로 출제되었다. 김홍도는 <강구연월>에서 요임금이 목격한 사통팔달의 시가지를 조선의 산촌으로 변안했다. 아늑한 촌락과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의 평화스러운 일상을 도해한 것이다. 띠풀을 엮어 지붕을 엮고 나뭇가지를 엮어 담장을 세운 소박한 농가의 풍경이다. 이러한 전원을 배경으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가 한창인데, 아이들이 춤을 추니, 구경군도 몰려드는 광경이다. 이러한 작화태도는 <강구연월> 뿐 만 아니라 <하후씨치수성공>에도 반영되었다. 조선식 가옥과 정원이 묘사된 것이다. 반면, 인물은 중국식 도포와 관모를 갖추어 주위 배경과 대조를 이루었다. 김홍도가 다른 고사인물화에서 시도했던 고전상과 실물경의 조화가 이 군주고사병에서도 발견된다.

### III. 제순고사도의 제재와 표현방식

#### 1.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순제대효(舜帝大孝)’

우순(虞舜)의 이름은 중화(重華)이고, 부친은 고수(瞽叟)인데, 선조는 모두 지위가 낮은 서민이었다. 순의 부친 고수는 맹인이었다. 순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상(象)을 낳았는데, 상은 매우 오만하였다. 고수는 후처가 낳은 아들을 편애하여 항상 순을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순은 이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고, 순이 어찌다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곧 벌을 받았다. 그러나 순은 언제나 아버지와 계모에게 순종했고, 동생도 잘 돌보았으며, 날마다 독실하고 성실하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사마천(司馬遷, BC 145? -BC 86?) 『사기』 <오제본기>에 실린 순임금의 평전이다.<sup>30)</sup> 순임금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부모에게 조차 효도를 다했으

29) 강관식, 앞의 책, 139-140쪽

며, 이복동생을 거두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성인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순임금의 효행은 효자의 범본이 되어 『삼강행실도』의 화제로 채택되었다. 세종의 명으로 1432년에 편찬된 후, 1434년 4월에 반포된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의 고사가 수록된 목각판본이다.<sup>31)</sup> 이 서적은 세종이 1428년 김화(金禾)의 부친 살해사건을 접한 뒤, 근원적인 예방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창안되었다.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은 고려시대 권보(權溥, 1262-1346)가 지은 『효행록』과 같은 서적이 필요하다고 진언했고, 이에 세종은 직제학 설순(僣循, ?-1435)에 명하여 『초간한자본』을 간행하도록 지시했다.<sup>32)</sup> 세종은 “특이한 자를 취하여 도(圖)와 찬(贊)을 만들어 반포하면, 어리석은 백성들도 모두 쉽게 보고 감동하여 분발하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편찬 동기를 언급했다.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를 각각 110명씩 선별하여 이에 관한 고사를 도해한 후, 내용을 기록했다. 또한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효순사실(孝順事實)』의 시를 곁하고, 『효행록』의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찬문과 다른 문신의 찬문도 연이어 실었다.<sup>33)</sup>

<효자도>는 중국의 효자 87편과 한국의 효자 23편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군주고사 장면은 ‘순제대효(舜帝大孝)(도 2)’, ‘문왕문안(文王問安)(도 3)’, ‘문제상약(文帝嘗藥)(도 4)’이다. ‘순제대효’는 순임금이 역산에서 농사지을 때, 그를 위해 코끼리가 밭을 갈고 새가 밭을 매어 준 고사이다. 이제현은 “순임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완악하고 아우는 오만하여 어질지 못한데, 순임금이 밭에서 농사지으며 하늘 보고 외쳐 우니, 새가

30) 사마천 저 정범진 외 역주, 『사기』(서울: 누리미디어, 2001)참조

31) 李洙京, 「朝鮮時代 孝子圖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17쪽, 최윤철, 「朝鮮時代 行實圖 版畫 研究」(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7-42쪽 참조

32) 최윤철, 위의 논문, 37-42쪽 참조

33) 僣循, 奉勅撰 『三綱行實圖』 權探 <三綱行實圖序>1432년,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貴296B 1)

김을 매어 주고 코끼리가 밭을 가네. 짐승도 감동할 줄 아는데 사람의 마음이라? 완악한 사람이 기쁨을 얻고 오만한 사람이 착해지니, 순임금의 효성은 만세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찬문을 첨가했다.<sup>34)</sup> ‘문왕문안’은 문왕이 세자 시절 아버지인 왕계를 하루에 세 번 문안했고, 아침수랏상의 차고 더움을 직접 챙겼으며, 왕계의 몸이 불편하면 밭이 땅에 닿지 않도록 간호했다는 고사이다. ‘문제상약’은 한무제의 어머니인 박태후(薄太后)가 3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한문제가 어머니를 밤낮으로 돌보고 탕약을 직접 맛본 뒤 올렸다는 고사이다.

‘순제대효’, ‘문왕문안’, ‘문제상약’ 모두 우측상단에 표제와 더불어 ‘우(虞)’, ‘주(周)’, ‘한(漢)’이라는 국명을 함께 표기했고, 한 화면에 두 개의 장면(scene)을 동시에 도해했다. ‘순제대효’에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다른 ‘고사’가 펼쳐졌다. ‘순제(舜帝)’라고 쓰인 인물상 우측에 김을 매는 새들이, 좌측에 밭을 가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배치되었다. 순임금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중이며 뒤편으로 둥그스름한 구릉의 역산이 드리워져 있다. 하단은 순임금이 아버지 고수와 계모에게 문안드리는 장면이다. 순임금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고, 고수와 계모가 대청마루 위에 공수자세로 앉았으며 이복동생인 상이 부모 곁에 서 있다. 고수의 경우 눈을 감은 채 장대를 들고 있어, 맹인임을 알 수 있다. 고수 곁의 계모는 다소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고수가 가장 크게, 이복동생 상이 가장 작게 그려져서 서열과 나이에 따라 인물상의 크기를 달리 했다. 한 화면에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삽입하기 위해 산등성이를 칸막이로 설치했다. 주인공이 반복 등장하지만 서사의 연결성은 없어 각각의 장면이 독립적이다.

반면 ‘문왕문안’은 이야기의 전개가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서술적 고사인물화이다. 하단에는 문왕이 진지상의 차고 더움을 확인하는 장면이, 상단에는 부모님 전각을 찾아뵙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담벼락과 팔작지붕의 대문, 주방, 부모님이 거주하는 전각이 상층 배치되어, 대문

34) 倂循, 奉勅撰『三綱行實圖』〈舜帝大孝〉(26.7×16.5 cm), 이제현 찬문.

을 따라 저택 안으로 이동하는 인물의 동선을 짐작할 수 있다. 저택 내부의 마당을 조감하기 위해 부감법을 사용했고, 주인공 옆에 ‘문왕(文王)’이라고 쓴 사각 명패를 부착했다. 구름을 판각하여 저택의 공간을 분리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연출했다.

‘문제상약도 아래채는 문제가 부모님께 드릴 약을 먼저 맛보는 장면이며, 위채는 평상에 기댄 노모가 아들을 기다리는 광경이다. 그러나 별개의 사건을 한 화면에 동시에 재현한 순제대효나, 시간의 전개에 따라 주인공을 두 번 등장시킨 문왕문안과 달리, ‘문제상약’은 동시간대의 상황을 공간만 분리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한문제가 한번 등장한다.

권채가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삼강행실도 중에서 <효자도> 110편의 범본은 『효행록』이었다. 『효행록』이란 1346년 권준(權準, ?-1459)이 그의 아버지 권보와 더불어 중국 고대의 ‘효행설’ 62장을 선정하여 엮은 책이다. 권보의 사위였던 이제현은 서문을 통해 『효행록』의 제작 과정과 구성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준이 일찍이 공인을 시켜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를 그리게 하였는데, 내가 그 그림에 찬을 썼으며 사람들이 자못 널리 전하였다. 이윽고 부원군이 그림과 찬을 권보에게 바치니, 권보가 서른여덟 가지 일을 초(抄)하여 나에게 그 찬을 부탁하였다. 이리하여 전후로 지은 찬이 모두 예순 네 가지 일이었는데, 우구자(虞丘子)에 자로의 효행을 붙이고 왕연(王延)에 황향(黃香)의 일을 붙였으므로 62장이 된다.<sup>35)</sup>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효행록』은 <이십사효도>에 38장을 더하여 62장의 효행을 수합한 저서이다. <이십사효도>는 유교 이념 중 가장 소중한 덕목인 효를 권장하고자 중국 상고시대부터의 효자 스물네 명을 선별하여, 그들의 고사를 도해하고 서술한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삼강행실도』의 ‘순제대효’는 <이십사효도>에, 나머지 ‘문왕문안’과 ‘문제상약’은 권보가 추가한 38장에 포함되었다. 다만 화제가 ‘대순상경(大舜象

35) 이제현, 『익재집』 습유, <효행록서(孝行錄序)> 참조



耕), ‘주후문안(周后問安), ‘한황상약(漢皇嘗藥)’으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도 순임금을 비롯한 성현의 효행은 유향(劉向, B.C.77-B.C.6)이 엮은 『효자전』에 수록되었을 뿐 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미술품에서 시각화되었다. 예를 들어 한 대(漢代) 무량사(武梁寺) 화상석의 ‘동영(董永)’고사를 비롯하여 낙양시립박물관 소장 영무석실(寧懋石室)(도 5)이나, 넬슨 아트킨스 미술관 소장 석관(도 6) 등 북위의 장례미술에서 효자도가 발견된다. 영무석실에는 동영(董永), 정란, 순임금의 고사가, 석관에는 곽거, 효손(孝孫), 위(尉), 채순, 동영의 고사가 선각되었다. 영무석실에 묘사된 순임금 장면은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에 실린 내용이다.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순의 이복동생 상과 함께 순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순임금에게 우물을 파도록 시켜 그 속에 파묻으려 했으나, 순임금은 우물 밖으로 나오는 비밀 구멍을 미리 파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중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동생을 사랑해주었다.<sup>36)</sup> 영무석실을 보면, 사랑채 사이에 방형 우물이 있고 그 왼편에 고수와 상이 서 있다. 순임금은 양손으로 난간을 잡은 채 우물 안으로 들어가 하반신이 보이지 않는다. 우물곁에 순임금의 부인 여영이 서 있고, 사랑채 마루에 아황이 앉아 있다.<sup>37)</sup> 넬슨 아트킨스 소장 석관에서도 동일한 고사가 목격된다. 순임금은 나무 아래 위치한 사각우물에 상반신만 드러냈고, 그 위편에 아버지 고수와 동생 상이 몸을 구부려 이를 바라보고 있다. 영무석관에 표현된 아황과 여영은 생략되었다. <sup>38)</sup>

일반회화 형식의 효자도는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 기록되어 있다.

36) 사마천, 『사기』 「오제본기」 참조

37)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 『中國美術全集』 19, 石刻線畫(上海人民出版社, 1988), 도판 7참조

38) The Cleveland Museum of Art, Nelson Gallery and Atkins Museum of Fine Arts, *Eight dynasties of Chinese painting : the collections of the Nelson Gallery-Atkins Museum, Kansas City, 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Cleveland : Cleveland Museum of Art, 1980), 참조.

중국 남조 송의 화가인 사치(謝稚)가 그린 인물화 중에 효자도가 포함된 것이다.<sup>39)</sup> 본격적으로 24개의 효자고사가 조합된 것은 송대로 추정된다. 낙양 북송 장군묘 화상석관(洛陽北宋張君墓畫像石棺, 이하 화상석관), 산서둔유송촌금대벽화묘(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이하 둔유묘), 山西長治安昌金墓(산서장치안창금묘, 이하 안창묘), 山西長子縣 石哲金代壁畫墓(산서장자현석철금대벽화묘, 이하 석철묘) 등, 송대(宋代)나 금(金)의 고분미술에서 세트화 된 이십사효도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화상석관과 무덤에 묘사된 24개의 효자고사는 권준이 편찬한 『효행록』의 <이십사효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순임금의 고사는 코끼리가 순임금 대신 밭을 갈아주는 장면이다. 코끼리를 앞세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 중인 인물 위에 ‘순자(舜子)’라는 묵서명이 표기되었다. 안창묘 북벽(도 7)에서는 탈모를 한 단령장복차림으로 오른손에 채찍을 들었고, 석철묘의 서벽(도 8)에서는 검은 복건과 짧은 저고리를 갖춘 채 코끼리 한 마리와 동행했으며, 둔유묘 북벽(도 9)에서는 검은 복두를 썼고 황색 단령을 입었으며 손에 긴 막대기를 들었다.<sup>40)</sup>

고분미술 이외에도 이십사효도는 일반회화형식으로 반복 제작되었다. 남송대 유송년(劉松年)은 <이십사효도조맹견서화책(二十四孝圖趙孟堅書畫冊)>을 그렸고, 원대 곽거경은 그림과 문장을 동시에 판각한 <전상이십사효시선(全相二十四孝詩選)>을 편집했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전상이십사효시선>은 ‘상도하문(上圖下文)’의 형식으로 완성된 동몽서이다. 이 서적에는 대순(大舜)을 비롯하여 한문제(漢文帝), 민손(閔損), 증삼(曾參), 왕상(王祥), 노래자(老萊子), 정란(丁蘭), 맹종(孟宗), 황향(黃香), 동영(董永), 강시(姜詩), 채순(蔡順), 당부인(唐夫人), 오맹(吳猛), 섬자(劓子), 유검루(庾黔婁), 장효(張孝), 장예(張禮), 전

39) 장언원, 『역대명화기』 5, <晉> 조

40) 黃明蘭 宮大中, 「洛陽北宋張君墓畫像石棺」, 『文物』1984\_7, 81쪽, 王進先 朱曉芳, 「山西長治安昌金墓」, 『文物』1990\_5, 81쪽, 山西省考古研究所 晉東南工作站, 「山西長子縣 石哲金代壁畫墓」, 『文物』1985\_6, 47쪽, 山西省考古研究所 長治市博物館,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文物』2008\_8, 61쪽 참조.

진(田眞), 양향(楊香), 육적(陸績), 곽거(郭巨), 왕부(王裒), 주수창(朱壽昌), 황산곡(黃山谷)의 효행이 수록되어 있다.<sup>41)</sup> 상단 1/3은 효자고사, 나머지 하단은 5언절구의 시와 그에 대한 해설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대순(大舜)(도 10)’은 ‘순임금 대신 받을 갈아주는 코끼리’ 고사이다. 지팡이를 든 순임금과 코끼리만 크게 부각되었고 배경은 매우 간략하다. 목각본이라는 형식은 『삼강행실도』와 유사하지만, 24개의 효자고사는 『효행록』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고려에 유입된 <이십사효도>의 형식은 알 수 없지만, <이십사효도>가 효행교본의 범본이 되어 조선까지 유통되었음은 분명하다. 심지어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소장한 서화의 목록인 『화기(畵記)』에도 <이십사효도> 중 열두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sup>42)</sup>

24효의 구성인물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십사효도>에 순임금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임금 고사가 효의 대표적 상징이었음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제대효를 비롯한 문왕문안, 문제상약은 초간한자본 이후의 『삼강행실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효자도 중에서 군주고사만 생략된 것이다. 군주고사도는 『명군병』이나 『선명후암군병』나, 『양정도해(養正圖解)』와 같은 왕세자 교육용 교본에 별도로 도해되면서 『삼강행실도』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문왕문안’은 영조연간 <양정도병풍>에 ‘시선(視膳)’이란 화제로 시각화되었다.<sup>43)</sup> 또한 왕실용 감계병의 화제였던 ‘문제상약’은 조선후기부터

41) 橋本草子, 「『全相二十四孝詩選』と郭居敬-二十四孝圖研究 ノートその一」, 『人文論叢』43(京都女子大學, 1995) 참조.

42) 서거정, 『동문선』82 「화기」 <신숙주> 참조.

43) ‘문왕문안’은 명대 焦垞이 편찬한 『養正圖解』에 ‘寢門視膳(도 11)’란 화제로 가장 먼저 게재되었다. 또한 명대 嘉靖연간의 예조상서였던 霍韞(1487-1540)가 태자의 교육을 위해 바친 <聖功圖>에 ‘周 文王世子 問安’, 周 文王世子 視膳이란 화제로 수록되었다. 이렇듯 양정도, 성공도류는 조선후기 왕세자 교육용 교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왕실에서 활용된 양정도해와 성공도에 관한 논의는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故事 書畫帖 考察- <萬古奇觀>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4(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136-140쪽

확산되는 효자도 병풍에 포함되었다.<sup>44)</sup> 효자고사의 폭 넓은 확산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 2. 제순남훈전탄금(帝舜南薰殿彈琴)

문헌기록으로 확인했듯이 순임금의 일화는 군주고사만을 선별한 병풍에 많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군주고사병의 정확한 내용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종 7년 10월 21일, 박효원(朴孝元) 등이 임금께 바친 『명군병(明君屏)』은 여러 문신들이 붙인 시가 첨가되어 있어, 그림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명군병』의 세 번째 장면인 <제순도(帝舜圖)>는 당시 동부승지였던 홍귀달(洪貴達, 1438-1504)이 시를 담당했다.

### <제순도>

순이 오현금(五絃琴)을 타며 남풍시(南風詩)를 노래하기를,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의 불만을 풀어 주도다.  
 남풍의 때맞음이여, 우리 백성의 곡식을 풍부하게 하여 주네.”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온 세상이 역수(曆數)가 돌아옴을 칭송하니,  
 그 중화 오래도록 높이높이 우러르네.  
 경운은 뭉게뭉게 천장에 드리우고,  
 서일(瑞日)은 찬란하게 진의(袵衣)에 비치도다.  
 많은 업적 이룩될 때 단면(端冕)이 장엄하고,  
 오현금을 타는 곳에 봄바람 살랑살랑.  
 남풍 한 곡조에 민은(民慍)이 다 풀리니,  
 넓고 큰 인덕이 천하에 두루 찻네.”하였다.<sup>45)</sup>

44) 문제상약이 포함된 효자도 병풍은 대부분 10첩이며 화려한 채색에 공필로 완성되었다. 이수경, 「유교이념의 생활 속 실천-조선시대 효자도 병풍」,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사회평론, 2006), 376-399쪽 참조.

45) 『조선왕조실록』 성종 7(1476)년 10월 21일

순임금이 남훈전에서 오현금을 타는 일화는 순임금의 풍류적 성향과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암시하는 서정적 서사이다. 홍귀달은 『예기』 <악기(樂記)>편에 실린 순임금의 시를 인용하면서, 순임금의 공덕과 그가 다스렸던 나라의 태평성대를 찬양했다. 현재 작품이 전해지지 않아 그 시각적 특성은 파악되지 않지만, 이러한 고사인물 병풍은 국왕의 위엄과 자비를 동시에 표명하는 장엄물로 왕실 전각에 진설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조선 왕실은 순임금을 『명군도병』에 포함하면서 성군의 자질을 찬양했다. 왕실에서 유통된 감계용 회화의 기능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사대부는 순임금의 고사를 유학의 도통자들과 함께 장첩했다. 신원록(申元祿, 1516-1576)이 1539년 가을 선조 문강공 소유했던 8첩을 보고 쓴 화제나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이 김휴(金休, 1597-1638)의 아들 만웅(萬雄)에게 그리도록 한 그림에 ‘제순남훈전탄금(帝舜南薰殿彈琴)’이 포함된 것이다.<sup>46)</sup> 8첩 병풍은 ‘제순남훈전탄금’, ‘제요모자토계(帝堯茅茨土階)’의 군주고사도, 그리고 여섯 유학자의 일화로 구성되었다. 특히 장현광은 「우주요괄첩」과 「역학도설」에서 <전통첩>(도 12)과 <도통지도>를 제시하면서 유학의 체계를 도설로 표기할 때, 요임금과 순임금을 도통의 계보에 포함했다.<sup>47)</sup> 천지인황과 복희(伏羲)에서 시작된 도통이 공자에 이르기 전에 요순을 거친다고 간주했다. 왕통과 성통을 동시에 표시할 때, 요순을 도학의 계승자로 구체화하면서 지배의 정통성인 치통의 줄기로도 해석한 것이다.<sup>48)</sup>

조선후기에 활동한 안정복(安鼎福, 1712-1791)도 순임금을 제왕이 아

46) 張顯光, <附錄 敬慕錄(門人金休)>, 『旅軒先生續集』9 “其目有八 一曰帝堯茅茨土階 二曰帝舜南薰殿彈琴 三曰周公坐而待朝 四曰孔子杏壇授受 五曰周濂溪庭草交翠 六曰程明道傍花隨柳 七曰邵康節安樂窩 八曰朱晦庵武夷精舍”

47) 張顯光, <傳統帖卷五>, 「宇宙要括帖」, 『旅軒先生續集』5, 張顯光, <道統之圖>, 「易學圖說」, 『旅軒先生文集』8 참조.

48) 金泳斗, 「朝鮮 前期 道統論의 展開와 文廟從祀」(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20-21쪽 참조.

닌 유학자로 인식했다. 안정복은 26세인 1737년에 역대 제왕을 그린 치통도(治統圖)와 성현의 계통을 그린 도통도를 만들었다. ‘치통도’는 상고 시대부터 명, 청에 이르는 왕의 그림이다. 도통도는 “첫머리에 주자(周子)의 역도(易圖)를 내어 걸어 도의 근본을 밝혔고, 계속해서 복희, 신농, 요, 순, 공자, 맹자 등과 염락(濂洛)의 여러 현인들 및 원나라와 명나라의 제유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정통(正統)과 방통(旁統)으로 나눈 다음, 상도와 하도로 만들어진 계보”이다.<sup>49)</sup>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제왕 요순을 치통도가 아닌 도통도에 포함하면서 유학의 도를 계승하는 성현으로 간주했다. 이는 왕실에서 제작한 관성용 명군병의 기능과 사뭇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문헌기록만으로 ‘남훈전탄금’의 조형적 특성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사와 유사한 작품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바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토계모자도(土階茅茨圖)>(도 13)이다. <토계모자도>는 종이에 엷은 색과 먹으로 완성되었고, 세로 103.3cm, 가로 42cm인데, 박락이 심하여 일부분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화면 좌측 상단에 “흙으로 3단 계단을 만들고 띠풀로 지붕을 엮은 뒤 가지런히 자르지 않는다(土階三茅莽茨不剪)”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사기』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묵자(墨子)가 요순의 덕행을 숭상하며, “집의 높이는 겨우 3척, 흙으로 만든 계단은 세 개뿐, 모자(茅茨)로 만든 지붕은 잘라서 잘 정리하지도 않았고, 통나무 서까래는 잘 깎아 다듬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다.<sup>50)</sup>

그림을 보면, 임금의 띠풀로 지붕을 엮어 올린 초가 안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흙으로 만든 3단의 계단아래에 서 있다. 금을 타는 임금은 복두를 썼으며 평상복으로 추정되는 유복을 갖추었다. 인물상의 얼굴은 담홍색으로 음영이 선명되었고 이목구비는 가는 필선으로 구사되었다. 둥근 얼굴에 비해 신체는 긴 편이며, 옷주름은 비수, 태세, 강약이 일정

49) 안정복, <順菴先生年譜>, 『順菴集』 참조.

50) 사마천, 『사기』 「열전」 권130 <태사공자서>

하게 표현되었다. 초가 주위에는 대나무, 은행나무, 오동나무, 바위가 배치되었다. 김홍도의 정원표현에 반드시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인물은 고전상이지만, 배경은 한국의 산천을 그대로 사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왕의 검소한 생활상과 정사에 힘쓰는 태도를 표현한 ‘토계모자’는 요임금의 고사로 알려져 왔다. 앞서 언급한 『명군병』의 <제요도(帝堯圖)>의 내용이나 신원록, 장현광의 문집에 수록된 ‘제요토계모자’가 그러하다. 그러나 『사기』에 기록된 목자의 언급에 따르면, ‘토계모자’는 요임금 뿐 만 아니라 순임금에게도 해당하는 일화이다. <토계모자도>의 초가 안에서 금을 타는 임금은 ‘남훈전탄금’의 순임금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은 요순의 고사를 혼용하되 선정을 베푸는 순임금을 주인공으로 부각한 것이다.

#### IV. 맺음말

성현의 독특한 일화나 문학작품의 내용을 도해한 고사인물화는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감계와 감상의 시각물로 향유했던 인물화의 대표적 화목이다. 특히 제왕의 행적을 소재로 한 군주고사도는 왕실의 어람용 병풍으로, 혹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본서로 널리 애용되었다. 이러한 군주고사도에는 선정을 베푸는 성군 뿐 만 아니라 사악한 행실과 탐욕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악주도 포함되었다. 존경과 경계의 대상을 모두 시각화하여 열람한 것이다.

순임금고사도의 주요제재는 효성 지극한 효자의 미덕이 강조된 ‘순제대효’와 선정을 베풀었던 성군의 이야기인 ‘제순남훈전탄금’이었다. ‘순제대효’는 교화용으로 편찬된 『삼강행실도』에, ‘제순남훈전탄금’은 어전을 비롯한 치조 공간의 관성용 병풍으로 선택된 것이다. 특히 ‘제순남훈전탄금’은 요임금과 유학자의 고사를 장첩한 성현고사첩에 수록되어 도통의 계보를 표시했다. 한편 김홍도의 <토계모자도>에서는 요임금의 상징으로 알려진 ‘토계모자’에 순임금이 금을 타는 장면이 첨가되어 두

군왕의 고사가 혼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인물은 중국의 복식이나 관모를 갖춘 고전상인 반면, 전각이나 주위 정원은 한국적 풍경이어서 고와 금의 조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군주고사도는 군주가 지닌 성군, 성현, 효자로서의 덕목이 시각화되었다. 또한 왕실과 사대부를 훈육하기 위한 감계용 교본이나, 선정(善政)과 도학, 치통과 도통을 계승하는 유학의 전고(典故)로 유통되었다. 한 인물의 고사가 제작자와 감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됨을 알려주는 단서라 하겠다.

▷접수일 : 2013.01.04 / 심사개시일 : 2013.01.10 / 게재확정일 : 2013.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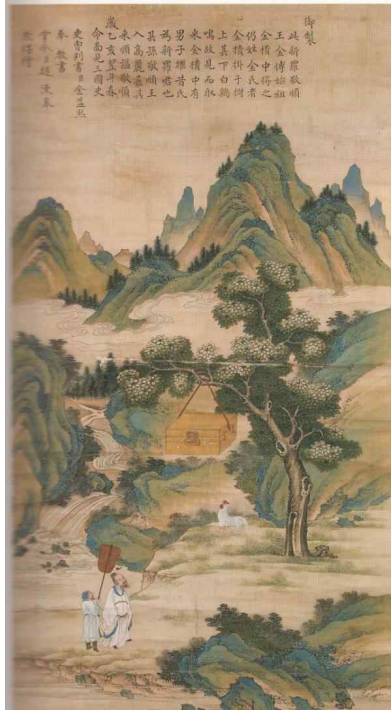


<참고 문헌>

- 『서경』  
 『국조보감』  
 『국역 조선왕조실록』  
 金塗, 『北渚先生集』  
 徐居正, 『東文選』  
 徐居正, 『四佳集』  
 安鼎福, 『順菴集』  
 李承召 『三灘集』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僕循, 奉勅撰, 『三綱行實圖』, 1432, 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문고貴296B 1)  
 강관식, 『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돌베개, 2001.  
 郭守正·高月槎 輯錄 林東錫 譯註, 『이십사효』, 동서문화사, 2012.  
 橋本草子, 「『全相二十四孝詩選』と郭居敬- 二十四孝圖研究ノートその一」, 『人文論叢』43, 京都女子大學, 1995.  
 國立中央博物館 編,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書畫遺物圖錄』14집, 靑綠山水畫六一帖, 國立中央博物館, 2006  
 국립중앙박물관, 『왕의 글이 있는 그림』, 국립중앙박물관, 2008.  
 金泳斗, 「朝鮮 前期 道統論의 展開와 文廟從祀」,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문화재청 편, 『한국의 초상화\_역사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놀와, 2007.  
 박정혜, 윤진영, 황정연, 강민기 지음,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2011.  
 박정혜, 황정연, 강민기, 윤진영,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山西省考古研究所 長治市博物館, 「山西屯留宋村金代壁畫墓」, 『文物』2008\_8  
 山西省考古研究所 晋東南工作站, 「山西長子縣 石哲金代壁畫墓」, 『文物』1985. 6.  
 王進先 朱曉芳, 「山西長治安昌金墓」, 『文物』1990\_5.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故事 書畫帖 考察- <萬古奇觀>帖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2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 윤호진 역, 『효행록』 경인문화사, 2004.
- 이선옥, 「성종(成宗)의 서화 애호(書畫愛好)」,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이성미 외, 대원사, 2005.
- 이수경, 「유교이념의 생활 속 실천-조선시대 효자도 병풍」,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2006.
- 李洙京, 「朝鮮時代 孝子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중국화론선집』, 미술문화, 2001.
- 中國美術全集編纂委員會, 『中國美術全集』19, 石刻線畫, 上海人民出版社, 1988.
-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글씨」,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보』3호,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1.
- 진준현, 「숙종의 서화취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보』7, 서울대학교박물관, 1995.
- 최윤철, 「朝鮮時代 行實圖 版畫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黃明蘭 宮大中, 「洛陽北宋張君墓畫像石棺」, 『文物』1984\_7.
- The Cleveland Museum of Art, Nelson Gallery and Atkins Museum of Fine Arts, *Eight dynasties of Chinese painting : the collections of the Nelson Gallery-Atkins Museum, Kansas City, and the Cleveland Museum of Art*, Cleveland : Cleveland Museum of Art,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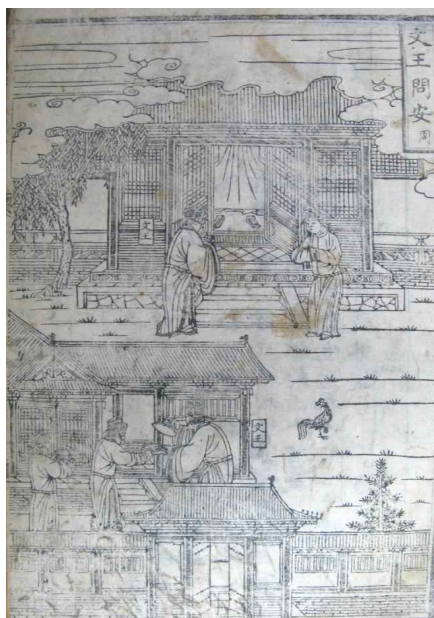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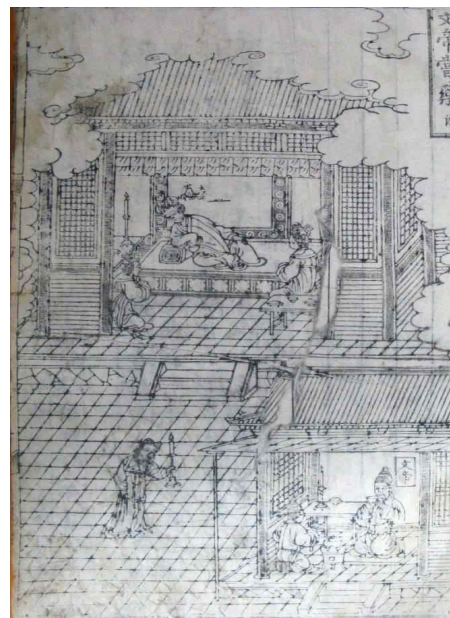
도 1. <金櫃圖> 17세기, 비단에 채색, 105.5×5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倣循, 奉勅撰, 『三綱行實圖』 <孝子> ‘舜帝大孝’, 1432년, 목판본, 26.7×16.5cm, 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문고 貴296B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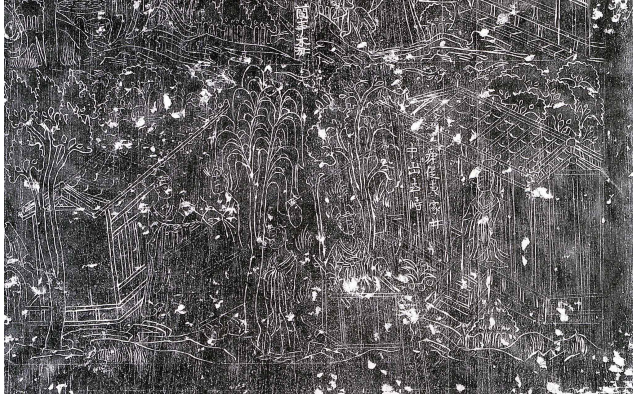


도 3. ‘문왕문안(文王問安)’,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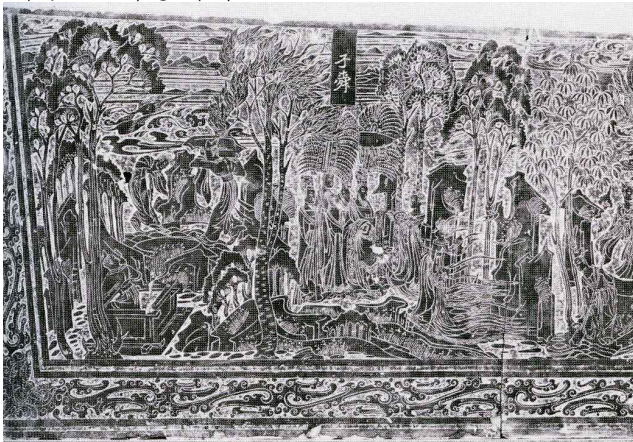


도 4. ‘문제상약(文帝嘗藥)’,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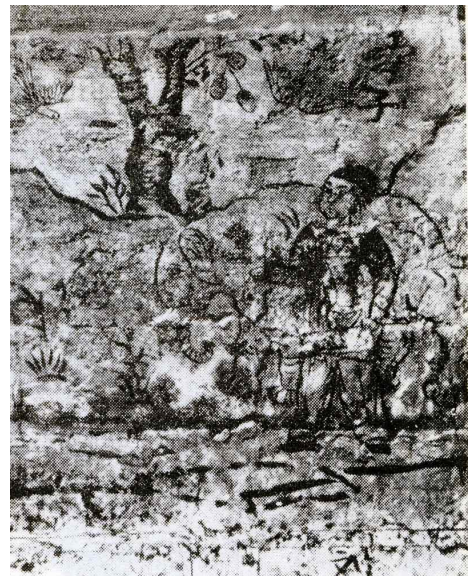
도 5. 寧懋石室, 북위, 525-528년 높이 8cm 넓이 97cm 낙양시박물관



도 6. 석관, 북위 525년, 높이 64cm,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도 7. 山西長治安昌金墓 북벽



도 8. 山西長子縣 石哲金代壁畫墓 서벽





## Abstract

### *Paintings of Ancient Monarchs of the Joseon Period - Focusing on the Paintings of Ancient Emperor Shun / Song Heekyung*

This essay explores the underdiscussed roles and functions of portraits and paintings of ancient and legendary figures drawn during the Joseon period, especially focusing on the materials and expressive styles used in the paintings of ancient monarchs. In particular, this essay discusses the visual characteristics and themes of paintings of Emperor Shun, a semimythical emperor of ancient China, widely revered for his good deeds. Included in this essay's analysis are two paintings, namely, *Sunjedaebyo* ("The Great Filial Piety of Emperor Shun") and *Jesunnamhunjeontangeum* ("Emperor Shun Plays the Zither at Namhunjeon"). *Sunjedaebyo*, a portrait of the ancient emperor as an exemplary and loving son, was included in *Samganghaengsbildo*, written and published for the moral enlightenment of the Joseon public. *Jesunnamhunjeontangeum*, depicting Emperor Shun as a caring and dedicated king, was displayed in various places in the royal palace. In particular, the latter painting was also included in a collection of writings on ancient Confucian sages and scholars, including Emperor Yao, indicating Shun's due place in the authentic pedigree of the Confucian tradition. The collection of writings also included *Togyemojado* ("Building a Staircase of Mud and Making a Rooftop of Straws"), Kim Hong-do's take on a well-known episode of the legendary Emperor Yao's life. While these paintings portrayed figures from Chinese history and mythology, the palace and the garden in the background were quite Korean in their style and influence. These paintings of ancient monarchs drawn during the Joseon period sought to express the diverse virtues of monarchs, such as their leadership, wisdom, and filial piety. They were used to urge good governance and facilitate the moral instruction and enlightenment of the public. The same stories of the same figure were drawn and painted qui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urposes and needs of the artist and the audience.

Key words: Paintings of Ancient Monarchs, Paintings of Ancient Emperor Shun, *Sunjedaebyo*, *Jesunnamhunjeontangeum*, *Samganghaengsbildo*.